

도시의 사회적 다양성이 서울시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다수준모형을 활용하여 -*

최희용** · 서은혜*** · 전희정****

Social Diversity and Quality of Life among People Living in Seoul: An Application of Multilevel Model*

Choi, Hee-Yong**, Seo, Eun-Hye***, Jun, Hee-Jung****

국문요약 최근 지역에 거주하는 구성원이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갖는 정도를 의미하는 사회적 다양성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사회적 다양성이 사회적 신뢰, 사회자본 등 삶의 질과 높은 상관관계를 형성하는 개념들과 긍정적 영향관계가 있음을 제시한다. 사회적 다양성의 대칭적 개념인 사회적 분리가 주민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사회 이슈임을 고려할 때 사회적 다양성과 삶의 질에 대한 직접적이고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역의 사회적 다양성이 개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을 다수준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 결과에 기초해 전체표본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소득계층을 구분한 분석을 추가적으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 투입된 다섯 개의 사회적 다양성 지표 중 주민 직업 유형의 다양성을 측정한 직업다양성이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다양성의 경우에는 동질성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은 이후 도시정책의 방향 설정에 유용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사회적 다양성, 삶의 질, 도시정책, 직업다양성, 다수준모형

Abstract: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attention to social diversity within communities. Previous studies suggest that social diversity is positively related to social trust and social capital that are intimately related to quality of life. Because of the controversy on social segregation that is an opposite concept of social diversity and is a factor negatively affecting quality of life, more studies on the association between social diversity and quality of life should be undertaken. This study employs a multilevel model to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social capital and quality of

* 본 논문은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의 BK21PLUS 사업에서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관리번호: 21B20151413334).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박사수료(제1저자: hy6753@skku.edu)

***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원(제2저자: xidxua@gmail.com)

****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국정전문대학원 부교수(교신저자: hjun@skku.edu)

life. We analyzed the association using both the pooled sample and samples splitted based on social class. The empirical result shows that the occupational diversity positively affects quality of life while the income diversity negatively affects quality of life. These results provide useful policy implications for setting urban policy directions.

Key Words: social diversity, quality of life, urban policy, occupational diversity, multilevel model

1. 서론

사회경제적인 지위 차이에 따른 사회적 분리 현상의 가시화는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켜왔다. 사회적 분리는 다음 세대로의 지위 계승뿐만 아니라 주거지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계층이동의 가능성이 저하되며, 사회적 차원에서는 계층이동의 실패에서 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의 사회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사회적 다양성을 지향함으로써 사회적 배제의 완화와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을 누릴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다양성에 관한 초기의 논의는 주택정책연구에서 다수 이루어져 왔다. 해당 영역에서는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만족과 이들의 계층적 성장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들은 다양한 주택정책 방안 구축을 유도한다. 많은 국가 및 도시에서 사회적 혼합 정책을 통해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집단에 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특정 지역에 함께 거주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다양성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논문들이 주택정책 영역에서 이루어진 사회적 혼합 전략이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만족도와 주변의 주택 시세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김주진·최막중, 2008; 박상우·박환용, 2014) 사회적 혼합 전략의 긍정적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

최근에는 사회적 다양성에 관한 관심이 주택영역을 넘어서 개인의 삶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Prezza and Costatini(1998)는 사회적 다양성과 공동체의식

간의 정의 관계를 규명하였으며, Fried(1982)는 사회적 다양성과 장소애착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국내에서는 고은정(2014)이 사회적 다양성과 개인의 사회자본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구성원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다양한 측면을 부각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단지 주택공급의 전략적 측면을 벗어난 것으로 전반적인 도시정책에 사회적 다양성이 고려되어야 함을 함의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비교적 최근에 등장했으며, 아직까지 개인의 삶 전반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앞서 논의된 공동체의식, 장소애착, 사회자본 등이 최종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규명한 다양한 연구들이 있음을 고려하였을 때(곽현근, 2008; 고명철, 2013; 남기민·남현정, 2013), 실제 사회적 다양성이 개인의 삶 전반에 대한 내용을 나타내는 지표라 할 수 있는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이후 도시 정책의 측면에서 중요한 함의를 던질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특히 민선지방자치의 부활 이후 행정의 분권화가 진행되면서 삶의 질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편적 접근보다는 개별지역의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과 학자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적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그 결과가 예상보다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최근의 다양한 삶의 질 지표들이 나타내고 있는바, 이러한 이유로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지역차원의 영향요인에 관하여 다각도에서의 개발은 꾸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의 사회적 다양성이 개인의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다 정교화된 분석 방법을 통해서 접근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는 지역의 사회적 다양성과 개인의 삶의 질이라는 두 주요변수가 각각 지역변수와 개인변수로서 다른 수준에 위치했음을 착안하여 다수준모형(multilevel model)을 이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지역의 사회적 다양성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가? 사회적 다양성의 여부는 심슨 다양성 지수(Simpson Diversity Index)를 활용하여 측정한다. 분석의 지역적 범위는 서울특별시이며, 시간적 범위는 데이터를 고려하여 2014-2015년으로 한다. 사회적 다양성 측정하는 지역의 분석적 단위는 서울특별시의 25개 자치구이며, 개인적 단위는 서울서베이에서의 응답 가구원으로 한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의 삶의 질에 지역의 사회적 다양성이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규명함에 있다. 이러한 실증적 분석이 이후 도시 정책의 방향 설정에 유용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어지는 2절에서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사회적 다양성과 삶의 질에 관한 개념 정립과 두 개념 간의 관계를 검토한다. 3절에서는 연구의 설계를 제시하며, 4절에서는 제시된 설계에 따라 다수준모형을 활용하여 사회적 다양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는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고 본 연구의 함의 및 한계점에 관해 논의한다.

2. 이론적 검토

1) 사회적 다양성

(1) 사회적 다양성의 개념적 논의

사회적 다양성(social diversity)이란 소득, 인종, 민족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거주하는 정도를 의미한다(고은정, 2014). 일반적으로 지역이 갖고 있는 전반적인 맥락과 정책적 요인, 지역의 물리적 또는 입지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알려져 있다(Talen, 2006). 사회적 다양성이 중요한 개념으로 부

각되기 시작한 것은 도시계획가인 Jane Jacobs(1961)가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의 방안으로 다양성을 강조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Jacobs는 도시의 생명력은 다양한 인간 활동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도시계획은 이러한 인간 활동의 다양성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어져 가야 한다(Jacobs, 1961)고 주장한다. 결국 사회적 다양성의 논의는 사회적 분리에 대한 대응으로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다양성의 개념적 정의를 함에 있어 사회적 분리와 대칭되는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의 논의되는 사회적 다양성의 구성과 효과 또한 사회적 분리를 함께 언급하면서 이해를 높이하고자 한다.

초기의 사회적 분리와 다양성의 논의는 다양한 인종과 민족 구성이라는 서구사회의 특징에서 비롯되었지만, 현재에 이르러서는 대다수의 연구자들이 사회 전반에서 분리 현상이 보다 복잡하게 도출되고 있음을 언급한다(Talen, 2006). 인종과 민족보다는 소득과 계층 또는 그리고 이 모든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에 따른 분리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Talen, 2006).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해방과 한국전쟁,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단계라는 역사적 흐름 아래 도심 빈민촌의 형성과 강남으로의 중산층의 이주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사회적 분리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배순석·전성제, 2006). 특히 다수의 선행연구들이 1960년대 이후 국가의 도시 및 주택 정책은 저소득층의 주거입지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기능하였는데, 수도권에서의 1970년대의 강남개발과 1990년 신도시 개발, 아파트 중심의 개발, 대규모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에 의해 계층에 따른 분리의 정도가 커져왔음을 지적한다(배순석·전성제, 2006; 차학봉, 2006; 도경선, 1994).

(2) 사회적 다양성의 효과

사회적 분리 완화 및 다양성 확보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일까? Sarkissian(1976)은 1970년대 이전에 논의되었던 사회적 혼합 정책에 관한 학자들의 논의를 정의하면서 사회적 혼합 정책을 통해 사회적 다

양성 확보를 추구하는 다양한 이유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소득집단의 생활수준 향상, 심미적 다양성과 문화적인 풍요로움의 강화, 기회의 균등 달성, 사회적 및 인종적 긴장의 완화를 통한 사회적 융합의 촉진, 개인과 사회의 성숙을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충돌 유발, 도시의 물리적 기능(리더십, 경제적 측면의 지속가능성, 최소비용에서의 필수 서비스 제공유지) 향상, 안정적인 주거지역 유지, 도시화된 현대사회의 다양성 반영으로 그 이유를 나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Sarkissian, 1976). Cole and Goodchild(2000)의 논의를 살펴보면, 위의 9가지 이익들은 인구의 다양한 구성이 “균형 잡힌 커뮤니티(balanced community)”를 야기하기 때문에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커뮤니티가 균형이 잡혔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사회통합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양한 인구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이와 같은 이익들을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Cole and Goodchild, 2000). Kearns and Mason(2007)은 위에서 나열된 내용들을 크게 네 가지 관점에서 유형화하였다. 첫 번째는 경제적 관점으로 사회적 다양성이 더 나은 공적·사적 서비스를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행태적 관점으로 거주민의 범죄 또는 반사회적 행동을 개선하고 주거 및 지역 환경의 유지보수를 위한 행동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더불어 청소년들의 학업성취 또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는 지역사회 수준의 효과로 이웃 간의 개선된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기인한 공동체의식과 장소애착을 예로 들 수 있다. 마지막은 사회적 차원에서의 배제가 완화된다는 것이다(Kearns and Mason, 2007). 논의한 내용을 종합하면 사회적 다양성이란 특정 거주지에 거주하는 인구의 다양한 정도를 의미하며, 다양성의 기준은 계층, 소득을 비롯한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특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다양성은 산업사회 발달의 심화로 지역 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배제를 완화하며, 경제적, 행태적, 지역사회적, 사회적 측면에서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야기한다

2) 삶의 질

(1) 삶의 질의 개념적 논의

삶의 질(Quality of Life)은 국민들의 생활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또는 정부의 정책효과성을 측정하는 성과지표로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삶의 질이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그것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합의된 견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삶의 질에 대해서 경제학, 행정학, 정치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도시계획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다차원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지는 만큼 분야마다의 연구 분야, 연구 목적, 분석 수준 등의 차이에 따라 삶의 질에 대한 개념 정의를 다면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개념 및 정의의 일치가 어려운 실정이다(Liu, 1974; D. Felce & J. Perry, 1995; 임희섭, 1996; 고명철·최상욱, 2012).

이렇듯 삶의 질에 대해 합의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삶의 질의 측정변수 역시 다채롭게 사용되고 있다(D. Felce & J. Perry, 1995; E. Diener & E. Suh, 1997; 임희섭, 1996; 김선아·박성민; 20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측정변수들은 크게 두 맥락에서 연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변필성 외, 2005; 김선아·박성민, 2014; 윤희철·정봉현, 2014). 첫 번째 맥락은 객관적인 관점에서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제반 환경에 의해 삶의 질을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이것을 객관적인 삶의 질이라고 한다. 두 번째 맥락은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도 차원에서 삶의 질을 보고자 한다. 이것을 주관적 삶의 질이라고 한다(변필성 외, 2005; 김선아·박성민, 2014; 윤희철·정봉현, 2014).

객관적 삶의 질은 사회지표로서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제반 환경들, 즉, 주거환경, 교육·문화, 교통, 사회복지, 공공안전 등의 조건의 차이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흐름으로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관점에서 삶의 질을 인지하고 측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은 경제학과 사회학적 논의에서 주로 확인되는데, 경제수준, 교육, 주거환경, 복지시설, 재정 등 산출 및 계산이 가능한 객관적 차원으로 접근한다(Gyourko & Tracy,

1991; 서승환, 2005). 경제학의 경우 전통적인 경제지표를 대체할 대안의 개발 측면에서 삶의 질을 접근하였으며(Kuznets, 1946; 1948; Sirgy, 2010), 사회학의 경우에는 개인이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삶의 질을 이해하고자 하였기 때문에(고명철·최상옥, 2012; 김선아·박성민, 2014) 이와 같은 흐름을 구상한 것으로 보인다.

주관적 삶의 질은 개인이 생활 가운데 느끼는 삶의 만족이나 행복 등 개인이 갖는 기대의 충족이라는 관점에서 삶의 질을 인지한다. 그 예로 Campbell(1981)은 삶의 질을 개인의 만족과 행복에 달려있고 행복이 개인의 삶의 질을 가장 잘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설명하였다. 이것은 개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갖는 다양한 기대수준들이 얼마나 충족되어 지고 있는가의 차원에서 삶의 질을 이해하는 것으로 이러한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주관적 삶의 질에 연구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심리학적 시각에서는 개인의 인지에 기반한 안녕감 등의 정서적 측면을 측정하고자 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Campbell, 1981; 이태종 외, 2000; 박현욱·이하나, 2006, 이영균·김동규, 2007).

이상의 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을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제반 환경이라는 객관적인 지표 역시 개인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체감하고 만족하고 있는지에 따라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삶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삶에 대한 만족도가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최종적인 개념이라 판단하고자 한다. 그러나 윤병식 외(1996)가 지적한 바에 따르면, 삶의 만족도로 삶의 질을 정의하는 경우 개인에게 분석이 집중되기 때문에 대상이 거주하는 측정 지역의 사회적 특징이 영향요인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윤병식 외, 1996).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적 차원의 종속변수에 대한 지역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의 설명변수를 모두 포함하는 위계선형모형을 통해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이와 같은 한계를 완화하고자 한다.

(2)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는 삶의 질을 삶에 대한 개인의 만족도로 정의한다. 그러나 앞서 논의하였듯, 삶의 질에 대한 개인의 만족은 일반적으로 공간단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지역적 특성 또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장인수·김홍석, 2013). 따라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개인 수준과 개인을 둘러싼 집단 수준을 병행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인 수준의 영향요인은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징과 더불어 행복과 만족에 관한 내면적인 심리나 정서 상태 또한 포함한다. 즉, 개인의 건강수준, 주거형태, 소득, 인구특성, 여가 등 일상생활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물리적 지표와 더불어 이 객관적인 환경에 대한 개인의 만족도 역시 개인적 측면의 삶의 질 측정요인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심리적 자존감이나 우울감, 자아존중감 등 현재 개인이 느끼는 행복과 만족이라는 주관적 지표도 함께 고려한다. 정선기(2014)는 WHOQOL-Bref의 측정 지표에서 '주관적 인지', '사회적 관계', '객관적 여건' 등 세 가지 측면을 선별하여 생활양식과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이 중 '주관적 인지'란 심리적 자존감과 삶의 의미에 대한 개인적 인식으로 개인적 수준의 지표에 해당한다. 객관적 측면은 여가의 기회 등 생활여건을 측정지표로 포함하고 있다. 장인수·김홍석(2013)은 노인인구의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을 분석함에 있어, 개인특성 변수로 성별, 연령, 학력, 혼인상태, 개인소득, 기초수급 여부를 투입하였다. 김선아·박성민(2014)은 개인적 변수로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개인의 근로상태, 건강상태, 주거수준, 생활수준의 물리적 환경과 우울감 자아 존중감이라는 심리자본을 투입하였다.

집단적 수준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개인을 둘러싼 지역적 측면에서 접근한다. 이때 지역이라 함은 하나의 국가 또는 도시를 대상부터 작게는 도시 내 근린주구를 범위로 이루어질 수 있다. 지역적 측면은 개인이 살고 있는 지역적인 특성과 관련되는데, 지역 내의 인구 구성요소와 행정·사회복지 수준, 주거환경, 교통 등의 물리적 환경과 더불어 상호호혜성, 사회자본 등

주관적 지표 역시 포함하지만, 지역적 변수의 특성상 객관적 지표의 비율이 개인적 변수보다는 높다. 지역적 변수의 객관적 지표로서 정선기(2014)는 거주 환경을 투입하였다. 이경태·권영주(2010)는 삶의 질 측정지표로 주거환경, 교육문화, 교통, 일반행정, 사회복지, 공공안전의 부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이는 지역적 측면의 객관적 지표로 볼 수 있다. 장인수·김홍석(2013)은 지역특성의 변수로 각 구내 시설복지면적, 노인복지시설 수, 의료기관 수, 재정자립도, 청렴도지수를 설정하였다. 한편, 김선아·박성민(2014)은 상호호혜성의 지표로 분석하였는데, 이는 지역적 변수 중에서도 주관적 지표의 성격을 띠다고 볼 수 있다.

3) 사회적 다양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다양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규명한 연구의 축적은 미진하다. 대신 근린만족(Parker et al., 2003) 사회적 신뢰(조민지·입업, 2017), 사회자본(고은정, 2012)과 같은 삶의 질과 높은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다양한 개념과의 영향관계를 다루고 있는 연구들이 있으므로 해당 논의를 토대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하고자 한다.

우선 사회적 다양성이 그 지역 내 거주민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접근이다. 이러한 접근은 심리학자인 Allport(1954)가 주창한 접촉이론, 사회적 혼합(ex, Sarkissian, Cole and Goodman), Florida(2002)가 주장한 창조계급 같은 논의에서 그 논거를 찾을 수 있다. Allport(1954)를 비롯해 접촉이론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접촉하는 기회가 증가할수록 서로에 대한 편견을 완화하고 상대방부터 느끼는 위협에서 보다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Pettigrew, 1998; Brown et al., 2005). 그런데 이때 위협요소에 대한 인지의 감소는 궁극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두 번째로 사회적 혼합 이론을 토대로 한 공공주택 공급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저소득층이

밀집되지 않고 다른 소득계층과 함께 거주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세련되고 준법적인 행태를 배우게 됨으로써 사회적 계층 상승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사회적 다양성이 높은 동네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일수록 높은 학업 성취를 보인다는 연구와 그 맥을 같이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적 다양성은 사회적 배제를 완화하게 된다(Kearns and Mason, 2007). 사회적 배제는 배제되는 개인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삶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도록 하며, 결과적으로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전병주, 2012), 사회적 다양성을 원인으로 완화된 사회적 배제는 결국 개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지막으로 Florida(2004)는 사회의 다양성은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한다. Florida는 위의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을 창조계급으로 정의한다. 이때 창조계급은 다양한 전문직종의 사람들을 포함하며, 대체로 이들이 창출하는 수익과 이들 자체의 소득은 매우 높다. 따라서 Florida는 지역의 다양성이 지역의 발전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Florida와 같은 논조에서 창조도시를 규정한 Charles Landry(2000), 균형 잡힌 공동체를 주장한 Cole and Goodchild(2000)는 사회적 다양성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의 성숙을 야기하는 사회적 충돌 유발이 가능하도록 함을 강조한다. 사회의 성숙은 그 사회 속에 속한 사람들의 지속적인 발전을 유도하기 때문에 개인의 삶에서 높은 만족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사회적 다양성이 개인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접근 또한 존재한다. 정치학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갈등이론이 그것이다(조민지, 2017). Putnam(2007)은 급격한 이민으로 인해 인종이 혼재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지역의 동질성과 사회자본이 낮아짐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신뢰와 규범, 네트워크로 구성되는 사회자본은 개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대표적인 요인 중 하나이다(이미라, 2011; 정순돌·성민현, 2012).

특히 Putnam(2007)은 이러한 사회자본의 붕괴가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 간뿐만 아니라, 동일한 배경의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강조한다(Putnam, 2007).

우리나라는 동질성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나는 문화를 보인다(Hofstede, 2003). 이러한 문화적 배경의 사람들은 자아가 근원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보다는 타인과의 비교, 또는 타인의 인정을 통해서 스스로를 정의하고자 하는 특징이 있다. 타인과의 비교, 특히 일부 측면에서 자신보다 나은 사람과의 비교는 개인에게 열등감 및 우울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은 전반적인 삶의 질에 대한 만족을 저해할 수 있다(정소라·현명호, 2015).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기존의 연구들이 지역변수로서 활용한 주거환경과 관련된 관측지표와 함께 사회적 다양성 지수를 지역 차원의 영향요인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사회적 다양성은 주택 및 도시의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지만 공공정책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개인의 삶의 질과의 관계는 아직까지 실증적으로 규명되지 못했다.

사회적 다양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상이한 결과를 보일 수 있음을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확인하였으므로 두 인과관계를 가설에 포함하여 함께 보고자 한다. 따라서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하나의 모델과 소득계층을 구분한 모델 2를 구분하여 다양성이 계층에 따라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사회적 혼합 아파트에 사는 거주자의 인식을 조사한 이혜진 외(2012)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과 일반 분양주택이 혼재된 혼합동의 경우 소득에서 “열등한 조건의 집단은 심리적 상승감을 느끼고, 우월한 조건의 집단은 상대적으로 하향감을 느끼고 있음(이혜진 외, 2012: 10)”을 규명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계층에 따라 사회적 다양성이 작동 방향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구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개인 수준과 지역 수준의 영향요인을 모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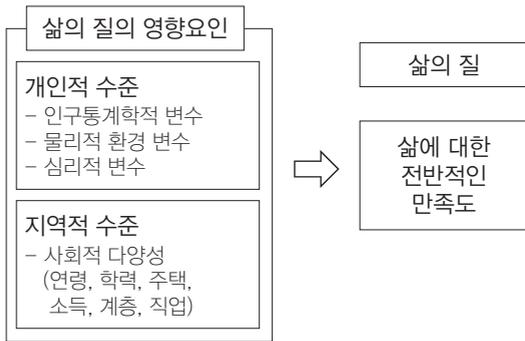
고려할 수 있도록 다수준모형을 통해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의 경우 개인 수준 또는 지역 수준의 변수만을 사용해 삶의 질을 설명하거나, 두 수준을 모두 고려하였다 하더라도, 지역 수준의 영향요인을 만족도로 치환하여 분석에 적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두 변수의 수준을 고려한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더라도 연구의 범위를 특정 사례(복지 프로그램) 또는 특정 범주의 대상(노인 등)에 한정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향요인의 상이한 수준을 고려하여 다수준모형을 활용해 분석을 진행하고자 하며, 분석의 범위를 서울로 확대함으로써 연구의 일반화를 개선하고자 한다. 논의한 내용을 종합하여 선정한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 다양성은 개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3. 분석방법

1) 분석방법 및 분석자료

〈그림 1〉은 연구의 분석틀을 도식화한 것이다.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되는 분석 방법은 다수준모형 분석이다. 다수준모형은 개인적 차원의 종속변수를 개인적 차원과 개인을 포함하는 그 이상의 차원(집단)의 설명변수를 통해 설명하고자 할 경우 이용된다. 기본적인 구조는 회귀분석과 분산분석에 기초하고 있지만, 자료의 다수준 구조를 고려한다는 장점을 갖는다(유정진, 2006). 다수준모형 분석은 표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체모형, 저소득층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모형, 중·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모형으로 구분된다. 저소득층의 기준으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50% 이하의 소득을 보이는 가구로 정의한다. 그러나 최근 75%의 기준까지 국가의 긴급복지지원을 필요로 하는 가구에 해당됨을 이유로 법이 개정되었다. 따라서 75%를 저소득층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분석의 적실성을 좀 더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림 1〉 분석틀

분석에 사용되는 주된 자료는 서울시에서 수행한 “2015 서울서베이”이다. 모집단은 2015년 10월 1일 기준으로 서울시 거주 가구 및 만 15세 이상 가구원으로 표본의 크기는 20,000가구(가구원 46,837명)이다. 서울서베이 데이터는 시군구의 수준에서 600명 이상의 표본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준모형의 초기조건을 만족한다는 장점이 있다. 사회적 다양성과 집단적 측면의 통제변수는 자치구 수준에서 측정되며 통계지리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하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조사 자료와 국가통계포털 상에서 구득가능한 e-지방지표 자료를 활용하였다. 전자의 경우 읍면동 수준에서 연령과 주택유형 정보를 구득할 수 있어 자치구 수준의 사회적 다양성 지표 측정이 가능하다. 단, 두 자료에서는 계층과 직업에 대한 자료의 구득이 어려워 두 경우에만 2014년 서울서베이 자료를 활용하였다. 2014년 서울서베이는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계층을 묻는 문항과 직업을 블루칼러, 화이트칼러, 관리전문직, 기타로 구분하여 묻는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2015년 데이터의 경우에는 점수화하여 계층을 묻고 있기 때문에 임의로 계층을 구분하기 어렵다. 또한 2014년도의 직업 문항은 기존에 전문직과 그 외 직업군을 묶은 선행연구보다 다양한 직업군을 포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분석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특별시이며, 공간적 단위는 서울시 25개의 자치구로 한다. 서울시 자치구는 자치권을 갖고 있는 가장 작은 규모의 행정단위이다. 역사적으로 하향식의 정책집행이 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특성상 지역의 자치권역에 따라 지

역의 특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삶의 질 신장을 추구함에 있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 수립에 유의한 함의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자치구를 분석의 단위로 설정함이 목적이 비추어 보았을 때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측정변수

먼저 종속변수는 개인적 측면(개인의 성격, 건강 등)에서의 삶의 만족도, 관계적 측면(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삶의 만족도, 소속집단의 측면(직장, 지역사회 등)에서의 삶의 만족도를 변수화하여 요인분석한 후 그 결과를 종속변수로 활용한다.

독립변수는 크게 개인적 수준과 지역적 수준으로 구분된다. 우선 개인적 수준은 인구통계학적 변수, 물리적 변수, 심리적 변수로 구분하여 분석에 적용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수는, 성별(여성=0, 남성=1), 연령(10~60대 이상), 혼인 여부(미혼, 사별, 이혼=0, 기혼=1), 학력(중졸 이하=1~대학교 졸업 초과=4), 월평균 가구소득, 직업유 무(무=0, 유=1)로 구성하였다. 물리적 환경 변수로는 개인을 둘러싼 도시의 환경에 대한 개인의 만족 정도로 도시의 위험도와 생활환경 만족도 변수를 사용하였다. 심리적 측면은 개인이 서울에 살면서 느끼는 심리적 감정으로 긍정적 감정(0점~10점)과 부정적인 감정(0점~10점), 지역 애착(서울을 고향으로 인지하는 정도), 본인이 소속된 계층(1~10점)으로 구성하였다.

지역 수준에서 사회적 다양성을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인구구성의 척도인 연령, 거주주택, 소득, 직업을 측정하였다. 연령은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으로 구분하였으며, 거주주택은 주택 유형별로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기타로 구분하였다. 소득은 100만 원 미만,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4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500만 원 이상으로, 직업은 관리전문직, 화이트칼러, 블루칼러, 기타로 구분하였다. 다양성 변수의 경우, 표본조사인 서울서베이를 사용할 경우 응답자의 특성만 반영

될 수 있기 때문에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2%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사회적 다양성의 여부는 심슨 다양성 지수(Simpson diversity index)를 활용하였다. 심슨 다양성지수의 경우 개체의 수뿐만 아니라 개체의 분포 비중을 이용하여 종의 다양성을 측정하기 때문에 균등성을 고려한 다양성 측정이 가능하다. 심슨 다양성 지수는 특정 집단에서 임의적으로 선택된 두 개체가 같은 유형에 속할 확률을 나타내는데, 0으로 갈수록 높은 다양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역수를 취해 분석에 활용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다양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지수를 측정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1/D = \frac{N(N-1)}{\sum_i n_i(n_i-1)}$$

D=심슨다양성지수

N=전체집단에 포함된 개체의 수

n_i=종 i의 개체 수

이와 함께 지역의 평균소득에 따른 소득다양성이 U자의 형태를 보이는 것을 감안하여, 소득다양성을 측정함에 있어 소득분위 10분위 중 하위 3분위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저소득층 비율)과 상위 3분위가 차지하는 비율(중·고소득층 비율)을 각각 구해 변수화하였다(Galster et al., 2008). 이와 같은 지표가 소득다양성을 나타내는 심슨 다양성 지수와 함께 모형이 투입된다면, 심슨 다양성 지수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득다양성을 측정함에 있어 심슨 다양성지수 및 Galster가 사용한 두 지표를 함께 분석에 적용하고자 한다.

통제변수로는 지역적 특성 변수를 사용하였다. 이론 검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삶의 질을 주관적인 만족도로만 측정할 경우, 대상자가 살고 있는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해결하고자 해당 구의 객관적인 수치 데이터들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삶의 질의 측정지표로서 지역적 변수는 선행연

〈표 1〉 변수 설명

	변수	세부 변수	출처	
설명변수	개인적 측면	인구통계학적 변수	성별	2015 서울서베이
			연령	
			혼인 여부	
			직업 유무	
			월평균소득	
			학력	
		물리적 환경변수	도시 위험도	
			생활환경 만족도	
		심리적 변수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	
	지역 애착			
	사회적 계층			
	집단적 측면	사회적 다양성	연령다양성	인구주택총조사(2010)
			주택다양성	2014 서울서베이
소득다양성				
직업다양성				
기타 지역변수 (통제변수)		재정자립도	e-지방지표(2015)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학생 한 명당 교원 수		
	인구 천 명당 공원 면적			
종속변수	삶의 질	삶의 질 종합	2015 서울서베이	

〈표 2〉 기술통계

	변수	세부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설명변수	개인적 측면*	인구 통계학	성별(남자=1)	46837	.48	.500	0	1
			연령	46837	43.36	15.85	15	94
			혼인여부(기혼=1)	46837	.68	.47	0	1
			가구소득(월평균)	46837	12.02	4.66	1	19
			직업유무(있음=1)	46837	.68	.467	0	1
		학력	46837	3.70	1.11	1	6	
		물리적	도시 위험도	46837	0	0	0	10
			생활환경 만족도	46837	0	0	.75	3.75
		심리적	긍정적 감정	46837	0	0	0	10
			부정적 감정	46837	0	0	0	10
	지역 애착		46837	0	0	1.0	3.5	
	사회적 계층		46837	6.26	1.73	1	10	
	집단적 측면	사회적 다양성	연령다양성	25	.68595	.00564	.67120	.69396
			주택다양성	25	.59333	.09542	.27112	.71705
			소득다양성	25	.64661	.09477	.43015	.80396
			직업다양성	25	.65407	.03598	.60430	.73569
		기타 지역변수 (통제변수)	재정자립도	25	35.94	14.68	17.50	66.20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명)	25	4.35	3.7	1.75	18.44
			학생 1인 당 교원 수(명)	25	17.81	3.61	13.23	24.16
			인구 천 명당 도시공원 면적(m ²)	25	756.83	524.52	101.82	2098.47
종속변수	삶의 질	종합	46837	7.36	1.35	0	10	

* 도시 위험도, 생활환경 만족도,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 지역 애착 변수의 경우 요인값으로 분석을 진행하였기에 평균 및 표준편차의 값이 "0"으로 확인됨.

구들에 의해 사용되어 왔으며(하혜수, 1996; 소진광, 1998; 이영균·김동규, 2007; 장인수·김홍석, 2013; 정선기, 2014), 이 중 이영균·김동규(2007)의 범주화에 따라 지역적 특성 변수를 선정하였다. 범주는 크게 건강한 생활여건, 경제적 활동여건, 교육·문화적 활동여건, 공공행정서비스 수준, 보건 및 위생 서비스, 자연환경 및 기타 생활여건이며 이에 따라 지역적 변수를 선택하였다. 국가통계포털의 e-지방지표 자료를 사용하였고, 지역의 경제적 역량 및 공공행정서비스 수준으로서 재정자립도(%), 보건 서비스 수준으로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명)를 측정변수로 사용한다. 교육적 여건에 대한 변수로 학생 1인당 교원 수(명)를 사용하며, 자연환경 및 기타 생활여건 수준의 측정을 위해 인구 천 명당 도시공원 면적(m²)을 구 단위로 사용하였다.〈표 1〉은 위의 변수설명 내

용을 종합한 것이다.

3) 기술통계

개인적 수준의 설명 변수의 기술통계는 〈표 2〉와 같이 나타난다. 먼저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혼인 여부, 가구소득, 직업 유무, 학력의 요소를 포함한다. 평균을 비교한 결과 여성의 비율이 많았고, 기혼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더 높았고, 평균 학력은 고졸 이상으로 나타났다. 직업이 있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월평균 가구소득은 550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집단변수인 사회적 다양성에서 시군구 간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측정지표는 연령변수로 나타났다. 심리적 변수로서 개인이 삶에서 느끼는 위험 정도에 대해서는 10점 척도 중 평균 6.095점으로 약간 높은 수

준이며, 생활환경 만족도는 평균 2.44점으로 비교적 만족하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개인이 느끼는 감정을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으로 나눠서 보았을 때, 긍정적 감정은 3.96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데에 비해 부정적 감정은 7.01점으로 평균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애착도는 2.425점으로 서울을 고향으로 느끼는 인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개인이 느끼는 사회계층은 평균 6.26점으로 중산층에 속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타지역 변수로서 서울시 각 구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35.94%로 나타났고, 보건 환경여건에 대한 변수로서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4.35명이며, 교육 여건 변수로서 학생 1인당 교원 수는 17.81명이었다. 자연환경 여건 변수인 인구 천 명당 도시 공원면적은 평균 756832평방미터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응답자의 삶의 만족도는 7.37점으로 평균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분석 결과

1) 요인분석

먼저 종속변수인 삶의 질을 비롯하여 일부의 변수들이 다수의 측정문항을 활용하여 분석에 투입되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요인분석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분석의 설명력을 잃지 않고자 하였다. <표 3>은 요인분석의 구형성을 검정하는 KMO(Kaiser-Meyer-Olkin) 측도와 Bartlett 검정을 기술한 것이다. 표에 따르면 KMO측도는 0.8 이상으로 요인분석을 하기에 해당 변수들이 적합함을 알 수 있다. Bartlett 검정의 결과 또한 유의확률 값이 0.05보다 작으므로 이 또한 요인

분석의 적절성을 설명하고 있다.

요인분석의 결과를 기술한 <표 4>에 따르면 각 측정문항 값들의 요인 하중값은 0.6 이상으로 측정문항이 변수를 공통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사회위험에 대한 인지에서 안전사고와 안보에 관한 측정문항을 다른 항목들과는 공통적으로 묶이지 않았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2) 다수준모형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진행한 분석의 결과는 <표 5>와 <표 6>과 같다. 우선 본격적인 분석을 진행함에 앞서 다수준분석 활용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독립변수를 포함하지 않는 무조건부모형을 수행하였다. 이 결과 집단 간 분산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전체 분산에서 집단 간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인 ICC(Intra-class Correlation)값이 0.055 (=0.101/(0.101+1.742))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지역 간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분산이 총분산량의 5.5%를 차지함을 의미한다.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각 모형의 분산 값을 비교한 결과, 무조건부모형에 비해 개인변수를 추가한 모형 1의 집단 간 분산 및 집단 내 분산이 모두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모형 1과 비교하였을 때 집단변수를 추가한 모형 2의 집단 간 분산이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변수 투입에 따른 분산의 감소는 모형 2가 종속변수를 설명함에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적합도를 보이고 있음을 나타낸다. 분산의 감소한 정도를 계산하면 무조건부모형(0.101)과 비교하였을 때 모형 2(0.016)가 지역 간 차이로 발생하는 분산의 85%를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형 2에 따르면 나이가 어리고(Coef.=-0.006), 소득이 높을수록(Coef.=0.044)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직업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높은 삶의 질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Coef.=-0.091). 심리적으로는 긍정적인 감정이 많을수록(Coef.=0.154), 반대로 부정적인 감정이 적을수록(Coef.=-0.030) 높은 삶의 질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주관적으로 자신의 사회적 계층을 높이 평가할수록(Coef.=0.126) 삶의 질이 높은 것

<표 3> KMO와 Bartlett 검정 결과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847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446642.572
	자유도	406
	유의확률	.000

〈표 4〉 요인분석 결과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요인 7	신뢰도(Cronbach's alpha)
사회 위험에 대한 인지	자연재해	.671							.868
	실업	.657							
	핵폐기물 방사능	.762							
	전염병	.740							
	부정부패	.681							
	폭력범죄	.719							
	사회갈등	.678							
	경제위기	.710							
	컴퓨터피해	.651							
행복지수	건강상태		.715						.842
	재정상태		.701						
	대인관계		.846						
	가정생활		.822						
	사회생활		.845						
긍정적 감정	즐거움			.743					.738
	행복한			.792					
	편안한			.784					
부정적 감정	짜증나는				.829				.829
	부정적인				.866				
	무기력한				.841				
삶의 질	개인적 측면					.839			.824
	관계적 측면					.852			
	집단적 측면					.820			
지역 애착	고향으로의 인지(실제)						.800		.421
	고향으로의 인지(느낌)						.783		
생활환경 만족도	주거환경							.744	.727
	경제환경							.716	
	사회환경							.754	
	교육환경							.752	

〈표 5〉 무조건부모형 분석 결과: 전체모형(전체, N=46,837)

고정효과	회귀계수	표준오차	t	p
절편	7.379	0.063	115.40	0.000
무선효과	분산	표준편차	χ^2	p
집단 간 분산	0.101	0.028	2652.16	0.000
집단 내 분산	1.742	0.011		
	ICC	표준편차		
	0.055	0.014		

으로 나타났다. 모형 2는 집단 수준의 독립변수를 포함한 모형이다. 본 연구의 주요 설명변수인 사회적 다양성을 살펴보면 직업 다양성과 소득다양성을 측정하

는 지표 중 하나로 투입된 저소득층 비율이 유의한 정 의 영향을 삶의 질에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직 업다양성에 대한 분석결과는 주민의 직업유형이 다양

〈표 6〉 다수준모형 분석결과: 전체모형(전체, N=46,837)

고정효과	모형 1		모형 2	
	Coef	S.E	Coef	S.E
Level-1				
성별	-0.002	0.012	-0.001	0.012
연령	-0.006***	0.000	-0.006***	0.000
혼인 여부	-0.005	0.008	-0.005	0.008
가구소득(월평균)	0.044***	0.001	0.044***	0.001
직업 유무	-0.091***	0.015	-0.091***	0.015
학력	0.007	0.006	0.007	0.006
도시 위험도	-0.006	0.006	-0.006	0.006
생활환경 만족도	0.004	0.006	0.004	0.006
긍정적 감정	0.153***	0.006	0.154***	0.006
부정적 감정	-0.029***	0.006	-0.030***	0.006
지역 애착	-0.009	0.006	-0.008	0.006
사회적 계층	0.126***	0.004	0.126***	0.004
Level-2				
연령다양성			-8.772	6.275
주택다양성			0.351	0.323
직업다양성			2.220**	1.089
소득다양성				
- Simpson 지수			0.176	1.408
- 저소득층 비율			1.994*	1.113
- 고소득층 비율			2.904	0.635
재정자립도			0.002	0.003
의사 수			-0.012	0.012
교원 수			0.029***	0.011
도시공원 면적			0.000	0.000
상수	6.437***	0.074	8.971**	4.149
임의효과	분산			
집단 간 분산	0.064		0.016	
집단 내 분산	1.568		1.568	

*** p<0.01, ** p<0.05, * p<0.1

한 지역에 사는 주민일수록 높은 삶의 질을 보임을 나타낸다(Coef.=2.220). 저소득층 비율의 경우에는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일수록 삶의 질이 높을 수 있음을 말한다(Coef.=1.994). 그 외의 기타 지역변수의 경우 학생 한 명당 교원의 수가 높은 지역일수록 주민의 삶의 질이 상당히 큰 유의성의 수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oef.=0.029). 반면 연령 및 주택 다양성은 지역민의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한 결과는 〈표

7〉, 〈표 8〉과 같다. 〈표 7〉에 따르면 집단 간 분산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무조건부모형의 ICC(Intraclass Correlation)값이 0.087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 간 차이로 인해 발행하는 분산이 총분산량의 8.7%를 차지함을 의미한다.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각 모형의 분산값을 비교한 결과, 무조건부모형에 비해 개인변수를 추가한 모형 1의 집단 간 분산 및 집단 내 분산이 모두 감소하였으며 개인변수와 함께 집단변수를 추가한 모형 2의 경우 모형 1보다 작은 집단 간 분산을 보인다. 따라서 모형 2가 종속변수를

〈표 7〉 무조건부모형 분석 결과: 저소득층 모형(저소득층, N=3,864)

고정효과	회귀계수	표준오차	t	p
절편	6.832	0.046	85.19	0.000
무선효과	분산	표준편차	χ^2	p
집단 간 분산	0.147	0.046	222.35	0.000
집단 내 분산	1.547	0.035		
	ICC	표준편차		
	0.087	0.025		

〈표 8〉 다수준모형 분석결과: 저소득층 모형(저소득층, N=3,864)

고정효과	모형 1		모형 2	
	Coef	S.E	Coef	S.E
Level-1				
성별	0.001	0.039	0.001	0.039
연령	-0.013***	0.001	-0.013***	0.001
혼인 여부	-0.035*	0.020	-0.036	0.020
가구소득(월평균)	0.035***	0.012	0.035***	0.012
직업 유무	0.019	0.043	0.019	0.043
학력	0.058***	0.018	0.057***	0.018
도시 위험도	-0.048***	0.017	-0.047***	0.017
생활환경 만족도	0.026	0.018	0.026	0.018
긍정적 감정	0.445***	0.022	0.446***	0.022
부정적 감정	-0.058***	0.019	-0.059***	0.019
지역 애착	-0.039**	0.019	-0.039*	0.019
사회적 계층	0.131***	0.013	0.129***	0.013
Level-2				
연령다양성			-7.499	11.080
주택다양성			-0.124	0.574
직업다양성			4.616**	1.918
소득다양성				
- Simpson 지수			-5.953**	2.535
- 저소득층 비율			5.152***	1.974
- 고소득층 비율			-0.385	1.116
재정자립도			0.013**	0.006
의사 수			-0.037*	0.022
교원 수			0.048**	0.019
도시공원면적			0.000	0.000
상수	6.447***	0.194	10.374	7.422
임의효과	분산			
집단 간 분산	0.096		0.044	
집단 내 분산	1.148		1.147	

*** p<0.01, ** p<0.05, * p<0.1

설명함에 있어 타 모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적합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조건부 모형(0.147)

대비 분산의 감소한 정도를 계산하면 모형 2(0.016)가 지역 간 차이로 발생하는 분산의 68%를 설명하고 있

〈표 9〉 무조건부모형 분석 결과: 중고소득층 모형(중·고소득층, N=42,973)

고정효과	회귀계수	표준오차	t	p
절편	7.427	0.062	119.66	0.000
무선효과	분산	표준편차	χ^2	p
집단 간 분산	0.095	0.027	2295.25	0.000
집단 내 분산	1.728	0.011		
	ICC	표준편차		
	0.052	0.141		

음을 알 수 있다.

〈표 8〉 모형 2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나이가 어릴수록(Coef.=-0.013), 소득이 높을수록(Coef.=0.035), 최종학력이 높을수록(Coef.=0.057), 사회적 위험을 낮게 인지할수록(Coef.=-0.047),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할수록(Coef.=0.446), 부정적인 생각을 적게 할수록(Coef.=-0.059), 지역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Coef.=-0.038), 자신의 주관적인 사회적 계층을 높게 평가 할수록(Coef.=0.129) 자신의 삶의 질을 높게 평가 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인 사회적 다양성의 경우, 직업 다양성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oef.=4.616). 반면 소득 다양성을 측정하는 지표 중 Simpson지수상에서는 거주하는 지역의 내 거주민들의 소득이 다양할수록 낮은 삶의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Coef.=-5.953). 그러나 지역 내 전체 인구 중 저소득층 비율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oef.=5.152). 이와 같은 소득 다양성 지표와 관련된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저소득층은 다양한 소득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는 지역보다는 자신과 유사한 소득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거주 할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중·고소득층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한 결과는 〈표 9〉, 〈표 10〉과 같다. 〈표 9〉에 따르면 집단 간 분산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무조건부모형의 ICC(Intraclass Correlation)값이 0.052이다. 즉, 지역 간 차이로 인해 발행하는 분산이 총분산량의 5.2%를 차지한다. 모형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각 모형의 분산값을

비교한 결과, 무조건부모형에 비해 개인변수를 추가한 모형 1의 집단 간 분산 및 집단 내 분산이 모두 감소하였으며 개인변수와 함께 집단변수를 추가한 모형 2의 경우 모형 1보다 작은 집단 간 분산을 보인다. 따라서 전체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분석과 동일하게 모형 2가 종속변수를 설명함에 있어 타 모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적합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무조건부 모형(0.095) 대비 분산의 감소한 정도를 계산하면 모형 2(0.014)가 지역 간 차이로 발생하는 분산의 85%를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은 다수준 분석 결과를 기술한 것이다. 모형 2의 결과를 살펴보면 설명변수의 회귀계수의 유의성 및 방향이 전체모형과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주된 독립변수인 사회적 다양성 관련 변수들 또한 전체모형 및 저소득층 모형과 동일하게 직업 다양성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Coef.=2.011). 그러나 소득다양성에 있어서는 고소득층 비율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을 볼 수 있다(Coef.=3.132). 반면 거주민의 소득 배경의 다양성 정도를 나타내는 Simpson 지수의 경우 중고소득층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세 가지 분석 결과를 종합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 다양성은 소득계층과 관계없이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다양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저소득층의 관점에서는 다양한 직업군과의 거주를 통해 취업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가장 높은 직업 다양성 지수를 보이는 강서구는 지속적인 자영업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으로 운수

(표 10) 다수준모형 분석결과: 중고소득층 모형(중·고소득층, N=42,973)

고정효과	모형 1		모형 2	
	Coef	S.E	Coef	S.E
Level-1				
성별	0.002	0.013	0.002	0.013
연령	-0.005***	0.000	-0.005***	0.000
혼인 여부	0.008	0.009	0.008	0.009
가구소득(월평균)	0.042***	0.002	0.042***	0.002
직업 유무	-0.095***	0.015	-0.095***	0.015
학력	-0.001	0.006	-0.001	0.006
도시 위험도	-0.003	0.006	-0.003	0.006
생활환경 만족도	0.002	0.006	0.001	0.006
긍정적 감정	0.133***	0.007	0.133***	0.007
부정적 감정	-0.027***	0.006	-0.028***	0.006
지역 애착	-0.007	0.006	-0.007	0.006
사회적 계층	0.125***	0.004	0.125***	0.004
Level-2				
연령다양성			-8.280	5.876
주택다양성			0.377	0.302
직업다양성			2.011**	1.020
소득다양성				
- Simpson 지수			0.641	1.317
- 저소득층 비율			1.691	1.042
- 고소득층 비율			3.132***	0.594
재정자립도			0.002	0.003
의사 수			-0.011	0.011
교원 수			0.026**	0.010
도시공원면적			0.000*	0.000
상수	6.447	0.076	8.522**	3.882
임의효과	분산			
집단 간 분산	0.065		0.014	
집단 내 분산	1.590		1.590	

*** p<0.01, ** p<0.05, * p<0.1

업에서 특히 강점을 보인다. 차순위에 위치한 종로구는 동대문구와 함께 전통적으로 도소매업의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으며 지속성을 담보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지역적 특성은 저소득층에게 타 지역에 비해 취업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중·고소득층의 경우에는 Florida(2002)의 창조계급 논의에서 그 설명을 찾을 수 있다. Florida는 창조계급이 다양한 문화 안에서의 상호교류를 통한 혁신을 추구하기 때문에 다양성이 높은 지역을 선호한다고 주장한다. 서로 다른 직업적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수록 창조계급은 자신의 창의성 발현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Florida, 2002). 이러한 논의에서 볼 때 중·고소득층의 경우에는 다양한 직업군을 만날 수 있는 지역환경에서 보다 높은 삶의 만족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가설 1을 일부 채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둘째, 소득의 다양성보다는 소득의 동질성이 개인의 삶의 질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Hofstede(2003)가 말한 한국의 동질성 추구가 소득의

측면에서 개인이 삶의 질을 판단하는 데에서도 존재함을 검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이 자신과 유사한 소득계층의 사람들과 함께 거주할 경우 좀 더 높은 안정감과 사회자본의 영속이 야기된다는 갈등이론의 논의 또한 한국 사회를 설명하는 상대적으로 적합한 이론임을 확인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설 2를 일부 채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소득계층과 관계없이 개인은 연령이 어릴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기쁨과 같은 긍정적 감정을 자주 느끼고 우울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덜 느낄수록 높은 삶의 만족을 느낀다. 노령층의 빈곤 현상이 대두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들의 삶의 질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¹⁾

넷째, 중·고소득층과 비교하였을 때, 저소득층의 경우 혼인 유무와 최종학력의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저소득층일 경우 가족부양에 대한 기혼자들의 부담으로 인해 낮은 삶의 질을 향유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과 비교하였을 때, 중·고소득층은 무직일 경우 좀 더 높은 삶의 만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인에게서 직업스트레스는 필수적인 생활의 일부라고 정의한 윤혜미·권혜경(2003)의 논의는 직업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이 개인의 심리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명주(2002)는 학력의 수준과 직무스트레스가 정의 관계를 맺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학력이 소득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이러한 이명주의 논의와 동일선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가구의 소득이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본 연구의 분석 결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다. 즉, 직업 유무에 상관없이 상당한 가구의 소득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 직무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운 무직의 개인이 그렇지 않은 개인에 비해 높은 삶의 질을 영유할 가능성이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지역의 사회적 다양성의 개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 차원과 지역 차원에서 검토하고 하였다. 또한 사회적 다양성과 개인의 삶의 질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함으로써 사회적 다양성이 상반되는 두 측면에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서울이라는 도시적 범위 안에서 어떠한 논의가 보다 적합한 설명을 제시할 수 있는가 탐색하였다. 연구를 위해 사용된 분석방법은 다수준모형으로 서로 다른 두 차원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규명함에 있어 기존 회귀분석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다양성은 소득의 정도에 관계없이 삶의 질에 긍정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저소득층에게는 취업의 가능성을 높이고, 중·고소득층에게는 다양한 직업적 배경의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오는 충돌과 혁신이 개인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셋째, 소득의 측면에서는 다양성보다는 동질성이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에는 동질성을 추구하는 국내의 문화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둘째, 개인적 차원의 변수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유사한 성격의 인과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단 저소득층의 경우 미혼일 때 보다 높은 삶의 질을 보이며, 중·고소득층의 경우 직업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 때 더욱 높은 삶의 질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도시정책 및 계획분야에서 주목 받고 있는 사회적 다양성이라는 개념이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는데 첫 번째 이론적 함의를 갖는다. 더불어 개인 차원과 지역 차원의 요인을 구분하고 개인의 삶의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수준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분석 차원에서의 함의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다양성과 삶의 질의 관계에 관한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 다양성 또는 동질성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를 찾을 수 있겠다. 본 연구의 결과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거주할 때 삶의 만족이 높아진다는 것은 이후의 주거정책에서 예상 거주민의 직업군에 관한 고려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연구에서 활용된 직업 다양성이 전문직과 직장인으로 대변되는 화이트칼라, 노동자계급으로 대변되는 블루칼라와 기타 직업군을 기초로 산정되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소득의 경우에는 다양성보다는 동질성이 삶의 질에 높은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지만 이러한 결과가 소득의 다양성을 회피할 근거로 활용되기는 어렵다. 다수의 선행연구가 지속적인 사회적 배제 현상은 저소득층의 우울과 야기하고 계층이동을 어렵게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물리적 사회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그 이전에 또는 동시에 사회적 다양성을 향한 개인의 인식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이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삶의 질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해석은 매우 다를 수 있음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본 연구는 사회적 다양성과 삶의 질 간의 관계를 개괄적으로 소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된 측면이 크다. 따라서 개인을 소득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지만 삶의 질과 사회적 다양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이후의 연구에서도 보다 세밀한 관점에서 개인을 구분하고 연구에 대입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주

1) 시장소득기준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2015년 63.3%로 꾸준히 상승 중이며, OECD 기준 최고의 노인 빈곤율을 보이고 있음. 사회보장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시장 소득은 여전히 낮은 상태임(뉴시스, 2017.4.18).

참고문헌

TBC., 2016, 일반-임대아파트 '분단 비극'... '가시 돌친 갈등' 여전, 2016.6.9.

- 서울시정연구원, 2016, 2016 도시정책지표조사 보고서, 서울시정연구원.
- 고명철, 2013, 공공서비스 만족도, 정부성과, 그리고 삶의 질 간 영향관계 분석, 『한국행정학보』, 47(2), pp. 1-30.
- 고명철·최상옥, 2012, 삶의 질(QoL) 연구의 행정학적 함의와 제언, 『한국행정학보』, 6(4), pp. 103-126.
- 고은정, 2014, 근린환경이 사회적 다양성과 동네 사회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서울시를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고은정·안건혁, 2014, 사회적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근린환경 특성에 관한 실증분석-서울시를 대상으로-, 『서울도시연구』, 15(1), pp. 1-15.
- 곽현근, 2004,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동네효과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행정학보』, 38(6), pp. 1-22.
- 곽현근, 2008, 지역사회 사회자본에 미치는 동네효과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11(4), pp. 59-86.
- 김주진·최막중, 2008, 사회적 혼합이 거주자의 사회적 배제와 주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국토계획』, 43(1), pp. 265-266.
- 김선아·박성민, 2014, 시민의 삶의 질 선행 요인 규명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 23(4), pp. 173-210.
- 김창석, 2002, 서울시 상류계층(파워엘리트)의 주거지역 분포특성과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7(5), pp. 65-85.
- 남기민·남현정, 2013, 노인의 주거환경 만족요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자존감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4(3), pp. 395-420.
- 도경선, 1994, 서울시의 사회계층별 거주지분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상우·박환용, 2014,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지역전세시장에 대한 영향 분석: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국토연구』, 83, pp. 69-80.
- 박영래·권혜진·김경희·최미혜·한승의, 2005, 노인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9(단일호), pp. 237-258.
- 박은철·남원석·김수경·오근상, 2016, 부담가능 임대주택 공급정책과 모델, 서울연구원.
- 박현옥·이한나, 2006,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상생활환경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5(1), pp. 83-93.
- 배나래·박충선, 2009, 노년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9, pp.

- 761-779.
- 배순석·전성제, 2006, 서울시 저소득계층 주거의 입지현황과 공간적 분리패턴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 pp. 191-205.
- 변필성, 2005, Quality of Life (QOL), 『국토』, pp. 52-52.
- 서승환, 2005, 서울시 자치구별 생활환경의 질에 관한 비교 분석, 『서울도시연구』, 6(2), pp. 21-38.
- 소진광, 1998, 일반연구논문: [삶의 질] 개념과 도시정책적 함의, 『지역사회발전학회논문집』, 23(1), pp. 65-84.
- 송건섭, 2011,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행복도시 조성방안, 『한국행정논집』, 23(3), pp. 853-877.
- 유정진, 2006, 위계적 선형모형의 이해와 활용, 『아동학회지』, 27(3), pp. 169-187.
- 윤병식·정우진·이현송·연하정·한성덕·박주현, 1996, 한국인의 [삶의 질]: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윤희철·정봉현, 2014, 인구감소시대의 특징을 반영한 도시의 삶의 질 지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6, pp. 35-57.
- 윤혜미·권혜경, 2003,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직업만족도, 『한국생활과학회지(충북가정학회지)』, 12(3), pp. 303-319.
- 이경태·권영주, 2010, 삶의 질 측정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17(1), pp. 97-132.
- 이경환, 2013, 지역주민들의 주관적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근린환경요인 분석-창원시를 대상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4(8), pp. 4019-4027.
- 이영균·김동규, 2007,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1(4), pp. 223-250.
- 이미라, 2011, 재가장애인 복지서비스 이용수준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차별경험의 조절효과,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태종·박철민·송건섭, 2000, 지역주민의 '삶의 질' 분석·평가: 경주시민을 대상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2(4), pp. 75-92.
- 이혜진·이수진·이연숙, 2012, 사회적 혼합아파트에 대한 거주자 인식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3(2), pp. 1-14.
- 임보영·마강래, 2016, 삶의 만족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집계적 자료와 비집계적 자료의 비교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8(1), pp. 89-104. 임희섭, 1996, 삶의 질의 개념적 논의, 『한국행정연구』, 5(1), pp. 5-18.
- 정순돌·성민현, 2012, 연령집단별 사회적 자본과 삶의 만족도 관계비교, 『보건사회연구』, 32(4), pp. 249-272.
- 정여주·홍성례, 2012,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주관적 삶의 질 관계 연구-학교생활만족도와 관계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4(3), pp. 239-257.
- 정선기, 2014, 도시민의 생활양식과 삶의 질(QOL), 『사회과학연구』, 25(2), pp. 137-161.
- 장인수·김홍석, 2013, 다중모형을 활용한 노인인구의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 실증분석, 『지역연구』, 29(3), pp. 19-42.
- 전병주, 2012,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적 배제가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12), pp. 237-247.
- 조민지·임업, 2017, 다문화 사회에 대한 지역의 관용도와 이주민이 인지하는 차별정도의 관계, 『국토계획』, 52(2), pp. 49-65.
- 차학봉, 2006, 『일본에서 배우는 고령화 시대의 국토 주택정책』,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채희섭·신정엽, 2015, 수도권 도시 공간의 사회적 다양성 변화 탐색, 『한국지리학회지』, 4(1), pp. 139-154.
- 천현숙·윤정숙, 2001, 아파트 주거문화의 진단과 대책, 국토연구원.
- 최준호·이환범·송건섭, 2003, 광역도시와 인근중소도시 지역주민 간의 상호이주 영향요인평가, 『한국행정학보』, 37(1), pp. 183-203.
- 하혜수, 1996, 도시정부의 '삶의 질' 결정요인 분석, 『한국행정학보』, 30(2), pp. 81-95.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동아시아 국제사회조사 참여 및 가족 태도 국제비교연구.
- 한정란·안경실·오병철, 2010, 중년 직장 남성의 직업 및 퇴직에 대한 태도, 『한국노년학』, 30, pp. 599-613.
- Allport, G. W., 1979, The nature of prejudice, 1954, Gergen, Kenneth J., 『The Significance of Skin Color in Human Relations』.
- Brown, R., & Hewstone, M., 2005, An integrative theory of intergroup contact,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7, pp. 255-343.
- Campbell, A., 1981, 『The sense of well-being in America: Recent patterns and trends』.
- Cole, I & Goodchild, B., 2000, Social Mix and the

- Balanced Community in British housing policy—a tale of two epochs, 『Geo Journal』, 51(4), pp. 351-360.
- Diener, E. & Suh, E., 1997, Measuring Quality of Life: Economics, Social, and Subjective Indicators, 『Social Indicators Research』, 40, pp. 189-216.
- Felce, D. & Perry, J., 1995, Quality of Life: its Definition and Measurement, 『Research in Developmental Disabilities』, 16(1), pp. 51-74.
- Florida, R., 2002,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and how it is transforming work, leisure, community and everyday life』, New York.
- Fried, M., 1982, Residential attachment: Sources of residential and community satisfaction, 『Jourd. The structure of local public finance and the quality of lif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9(4), pp. 774-806.
- Galster, G. C., Booza, J. C., & Cutsinger, J. M., 2008, Income diversity within neighborhoods and very low-income families, 『Cityscape』, pp. 257-300.
- Hofstede, G., 2003, 『Culture's consequences: Comparing values, behavior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across nations』, Sage publications.
- Jacobs, J., 1961,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New-York, NY: Vintage.
- Kearns, A., & Mason, P., 2007, Mixed tenure communities and neighbourhood quality, 『Housing Studies』, 22(5), pp. 661-691.
- Kuznets, S., 1946, 『National income (p. 144)』, New York: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Liu, Ben-Chieh, 1974, Quality of Life Indicators: A preliminary Investig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1, pp. 187-208.
- Parkes, A., Kearns, A., & Atkinson, R., 2002, What makes people dissatisfied with their neighbourhoods?, 『Urban Studies』, 39(13), pp. 2413-2438.
- Pettigrew, T. F., 1998, Intergroup contact theor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9(1), pp. 65-85.
- Pigou, A. C., 1929, The economics of welfare. Macmillan and Company, limited.
- Prezza, M., & Costantini, S., 1998, Sense of community and life satisfaction: Investigation in three different territorial contexts, 『Journal of Community & Applied Social Psychology』, 8(3), pp. 181-194.
- Putnam, R. D., 2007, E pluribus unum: Diversity and community in the twenty-first century the 2006 Johan Skytte Prize Lecture, 『Scandinavian political studies』, 30(2), pp. 137-174.
- Sarkissian, W., 1976, 『The idea of social mix in town planning: An historical review』.
- Sirgy, M. J., 2010, Toward a quality-of-life theory of leisure travel satisfaction, 『Journal of Travel Research』, 49(2), pp. 246-260.
- Talen, E., 2006, Neighborhood-level social diversity: Insights from Chicago,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72(4), pp. 431-446.

계재신청 2020.02.24.

심사일자 2020.03.06.

계재확정 2020.03.16.

제1저자: 최희용, 제2저자: 서은혜, 교신저자: 전희정